

광주시 유치 AI 관련 기업 320개사 돌파

AI 2단계사업 예타 면제 확정
전국 기업들 관심 높아 광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세운 광주광역시 지역 유치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이 320개사를 돌파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AI 기업 집적지로 성장하며 실질적인 AI 산업 허브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AI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데이터센터, 연구개발 기관, 전문 교육과정 등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만에 수백 개의 AI·반도체 기업이 광주에 둠지를 틀며 국내 어느 도시보다 빠른 속도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기업 유치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11일 북구 첨단3지구 인공지능산업융합 집적단지에서 열린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에서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기업과 기관 21곳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 지역과 협력하는 기업 수는 총 320개사로 늘어났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와 연구시설 확충, 전문 인재 양성, 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반도체·AI 관련 299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21개사가 새로 합류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참여한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와 검증, AI 반도체용 장비 개발, 초거대언어모델(LLM) 칩 설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AI 번역 및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가운칩스, 반도체 설계자산(IP) 강자인 칩스앤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11일 광주 첨단3지구 인공지능집적단지에서 열린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대형 드라이빙시뮬레이터’ 탑승시연을 하고 있다. ‘대형 드라이빙시뮬레이터’는 국내 최초 Lv3 이상 자율주행 개발 및 성능, 안전성 등 검증·평가 장비로, 이날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광주시

디어,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하우스로 꼽히는 에이디테크놀로지과 코아시아 세미 등은 이미 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들이다.

스타트업 가운데서는 초거대언어모델 추론용 칩을 선보인 하이퍼엑셀, 음성 보안 기술을 개발한 메타클라우드, 배터리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는 배터플라이,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번역 학습 플랫폼을 제공하는 하이로컬 등이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실험 자동화 로봇을 연구하는 뉴로랩, 데이터 기반 도로 분석 기술을 보유한 드로미 등도 참여해 AI 융합 응용 분야를 한층 넓혔다.

이번 협약의 특징은 단순한 참여 기업 수 확대를 넘어,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아우르는 ‘융합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설계·팹리스 지원 기업과 AI 알고리즘·서비스 기업이 함께 협력할 경우, 기술 융합과 사업화 성과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시는 또 신규 참여 기업이 지역 대학·연구기관과 손잡고 전문인력 양성과 채용에도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개 기관·기업의 참여와 협력 약속은 광주가 지향하는 ‘모두의 AI’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2단계 AI 사업 예타 면제 확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집적단지와 연계해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 창출과 해외 판로 개척에도 적극 나서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수천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층 고용 기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는 AI와 반도체 산업의 융합 생태계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다양한 신기술 분야의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까지 참여하면서, 광주가 첨단 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혁신 거점 도시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최창덕기자

전남도, 신규 R&D 예산 증액

바이오·이차전지·탄소중립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발판

이더 허브 구축을 통해 해양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는 2026년 정부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으로 235억 원을 확보, 올해(164억 원)보다 43.2%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2천45억 원(국비 1천689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예산 확보로 바이오, 이차전지, 탄소중립 등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과 함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기반이 마련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은 바이오 분야의 경우 차세대 융합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40억 원) 연구를 본격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 화순 바이오 특화단지에서 암세포 내성에 대응하는 미래형 면역항암제를 개발을 통해 전남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술개발(20억 원)이 반영됐다.

전남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해 2026년 정부예산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은 해양배터리 테

석유화학 분야는 다중 배출원 적용 CO2 전처리-액화-병커링 허브실증 기술 개발(40억 원), 선상용 CO2 포집 기술개발 및 실증(55억 원), 미래 모빌리티용 고분자 공중합체 제조기술 개발(55억 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탄소포집 핵심기술 확보와 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연구개발은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는 초혁신성장과 K-프리미엄의 기틀을 세우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대학·연구원 등 혁신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해 연구개발 사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AI와 첨단 연구개발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해 2025년 29조 6천억 원에서 2026년 35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19.3%가 늘었다. 전남도는 이러한 정부 투자 기조에 발맞춰 AI,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연구개발 사업을 꾸준히 육성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최창덕기자

‘목포-군산’ 서해안철도 실현 촉구

‘목포-군산’ 간 서해안철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5개 시·군 협의회가 11일 전남 영광군청에서 개최됐다.

서해안 철도는 4조8천억원을 투입해 목포에서 군산까지 110km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사업이다.

이 협의회에는 서해안철도가 경유하는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영광군, 함평군의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향후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창덕기자

또 서해안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건설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서해안철도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간담회와 공동 용역, 정책 건의, 범국민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서해안철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해 알릴 계획이다. /최창덕기자

강진군안전교육종합체험관

체험관 소개

우리의 생활 속 언제 갑자기 일어날 지 모르는 안전사고, 미리 배우고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진군안전교육종합체험관은

지진, 태풍, 화재, 교통사고 등 다양한 안전사고를 체험하면서 실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행동 습관을 키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체험관 안내

- 도로명 주소 : 전남 강진군 성전면 백운로36
- 전화번호 : 061-434-6613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jtsec.kr/
- 이용 방법 : 홈페이지 인터넷 사전 예약
- 교육 시간 : 평일 10시, 13시, 15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이용료 : 무료

